



# I. 저유가 배경과 산유국 부도위험 동향

## (1) 유가급락 주요 원인

### □ 미국 셰일오일 생산 확대 등으로 2014년 하반기부터 유가급락 초래

○ 2010년 이후 미국이 셰일오일 생산량을 확대함에 따라 전세계 원유 시장 공급과잉을 초래하여 2014년 6월부터 유가급락세가 시작됨.

- 셰일오일 생산기술 발전으로 원가경쟁력을 확보한 미국은 고유가 수혜를 위하여 2010년 상반기부터 2015년 2월까지 생산\*을 대폭 확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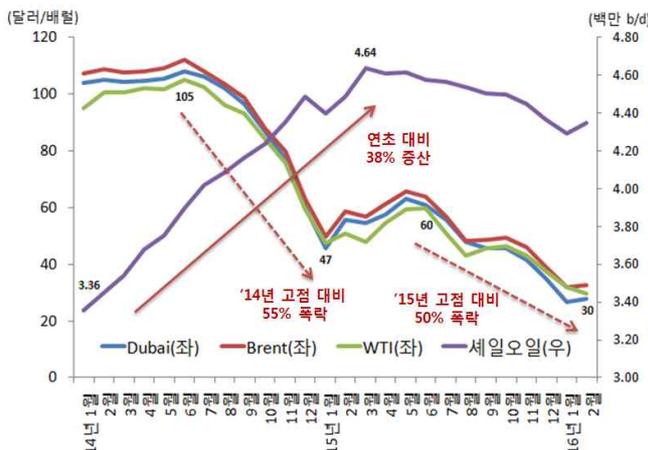
\* 36만 b/d('10.5월) → 248만 b/d('13.1월) → 336만 b/d('14.1월) → 435만 b/d('16.2월)

- 2014~15년중 2014년 4분기를 제외한 모든 기간에서 초과공급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2015년에 들어 초과공급폭이 더욱 확대됨.

○ 아울러, ① 미국의 셰일오일 수출 재개('15.12월), ② OPEC1) 감산합의 실패('14.11월 및 '15.12월)에 따른 기존 생산량('11.12월 합의한 3,000만 b/d) 유지, ③ 이란 경제제재 조치 해제('16.1월)로 인한 과잉공급 우려 등으로 2016년 3월 현재 초저유가 상태를 지속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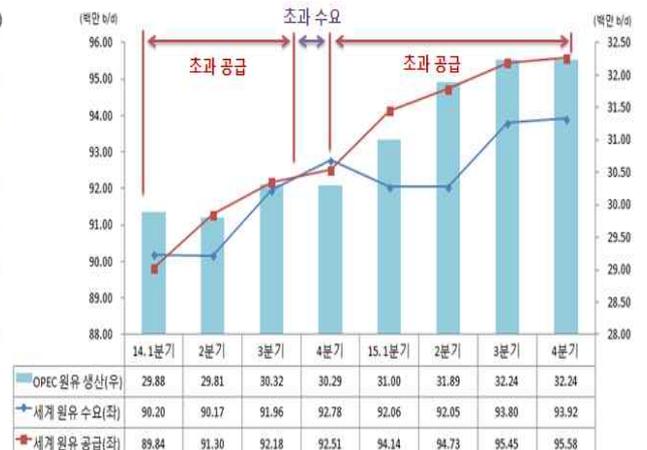
- 미국은 1차 오일쇼크('73년) 이후 원유수출을 금지하였으나, 2015년 12월 자국 내 석유기업들의 요구로 원유수출을 허가함.

<국제유가 및 셰일오일 생산 추이>



출처: Petronet

<원유 수요-공급 및 OPEC 생산량>



출처: OP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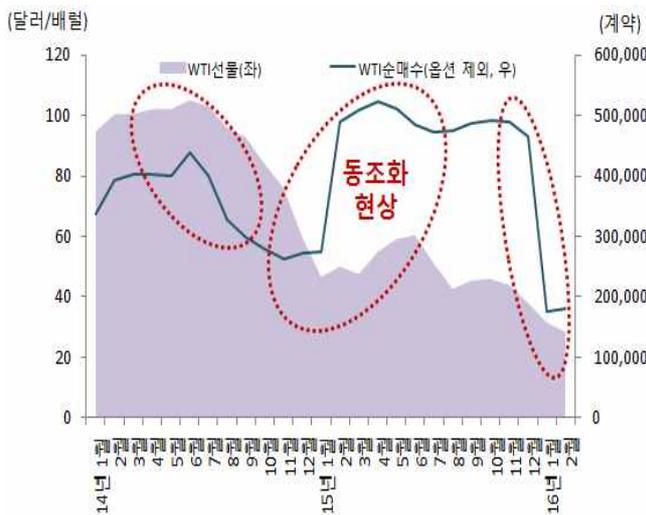
1) 사우디,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카타르, 리비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에콰도르, 앙골라 등 총 12개 회원국으로 구성

- 또한, 올해 2월 16일 사우디, 러시아, 베네수엘라, 카타르 등 4개국은 감산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1월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잠정 합의함.
  - 전세계 원유재고는 2014년초부터 급증하였고 올해부터 이란 재고까지 시장에 유입되고 있어 재고소진이 2017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 ※ 이란 정부는 원유 수출량을 현재의 130만 b/d에서 3월말까지 150만 b/d 까지 확대하고 수개월 내에 200만 b/d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유가 투기세력 매수세 급감 등도 유가회복의 걸림돌로 작용

- ① 유가 투기자금 축소, ②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 등 OPEC과 비OPEC간 시장점유율 경쟁, ③ 세계 2위 석유소비국인 중국 경기 부진에 따른 원유수요 감소, ④ 태양광, 바이오연료 등 대체에너지 도입 및 연비기술 개선 등도 유가 회복을 저해하고 있음.
- WTI순매수 포지션\* 계약이 2014년 6월 43.8만에서 2016년 2월 17.5만으로 급감하고 동기간 WTI선물유가도 105달러에서 28달러로 동반 급락함.
- \* 비상업용 매수포지션(투기자금)과 매도포지션 차이로서 WTI선물유가에 대한 투기자금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
- 사우디는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지속하여 셰일오일 가격경쟁력을 저하시켜 미국 업체의 시장탈퇴를 유도하는 동시에, 비OPEC국가의 시장점유율을 하락시켜 원유시장 패권을 장악하고자 함.

<WTI 순매수 포지션-WTI선물유가>



출처: Petronet

<주요 산유국 시장점유율>

(단위: 천배럴/일, %)

국 가	생산량	점유율
미국	11,644	13.1
사우디	11,505	12.9
러시아	10,838	12.7
캐나다	4,292	4.8
중국	4,246	4.7
UAE	3,712	4.0
이란	3,614	4.0
이라크	3,285	3.8
쿠웨이트	3,123	3.6
멕시코	2,784	3.3
베네수엘라	2,719	3.2
나이지리아	2,361	2.9
브라질	2,346	2.7

출처: OPEC

◆ 주요 산유국 생산원가 및 재정부담 전망

- 에너지 컨설팅 업체 Rystad Energy 발표자료에 따르면, 중동 산유국들의 생산원가가 배럴당 8.5~12.6달러로 산유국중 가장 낮은 수준
  - 생산원가가 가장 낮은 국가는 배럴당 8.50달러인 쿠웨이트이며, 이어 사우디와 이라크가 각각 배럴당 9.9달러와 10.7달러를 기록
  - 반면, 영국이 배럴당 52.50달러로 가장 높고 이어 브라질과 캐나다가 각각 배럴당 48.80달러, 41.00달러를 기록
- 한편, IMF는 사우디 등 중동 산유국들이 저유가 상황에서 현재의 생산량 및 재정지출 규모를 유지 시, 향후 5년 이내 재정이 고갈 될 수 있음을 경고

(2) 산유국 부도위험 동향

□ 저유가 기조로 베네수엘라 등 산유국 부도위기 가중

- ① 원유수출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난 심화, ②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인한 이자부담 증가, ③ 환율상승 지속에 따른 외채부담 가중 등으로 산유국들의 부도위험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 베네수엘라, 이라크 등은 이미 재정적자 비중이 20% 내외 수준으로 재정상태가 심각한 수준임.
  - 또한, 이들 국가 대부분이 저성장·인플레이 상황인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해 있어 경제성장에도 적신호를 나타냄.

<첨부 1: 주요 산유국 거시경제 지표>

- 한편, 저유가 지속에 따른 인프라 투자사업 취소·연기, 재정악화에 따른 복지혜택 축소 등도 산유국들의 사회불안을 야기함.

## II. 국가별 위험진단과 산유국 정책대응

### (1) 부도위험 평가기준

#### □ 외채상환태도 등 3대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고·중·저위험국 선정

- 외채상환태도(가중치 50%), 재정능력(30%), 금융시장변동(20%) 등 3대 기준과 총외채/GDP 등 8대 세부평가 항목을 적용하여 산유국의 부도위험 가능성을 평가함.

<첨부 2: 산유국 부도위험 평가기준>

- 평가대상국은 전세계 석유 생산량 기준 0.3% 이상인 산유국 중 미국 등 선진국을 제외한 21개 산유국으로 함.

<첨부 3: 평가대상 산유국의 석유 생산량 및 매장량>

- 평가기준에 따른 정량결과에 정성적 요소인 '거시경제 안정도'(조정폭 정량결과의 ±10%), '구제금융 요청'(±20%), '국제신용평가등급 괴리도'(±30%) 등도 함께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국가를 분류함.

<첨부 4: 전세계 주요 산유국 부도위험 평가지표>

<주요 산유국 부도위험 평가결과 >

구 분	고위험국 (2개국)	중위험국 (9개국)	저위험국 (5개국)	기타국 <sup>3)</sup> (5개국)
국 가 명	베네수엘라, 아제르바이잔 <sup>1)</sup>	앙골라, 브라질, 나이지리아 <sup>1)</sup> , 에콰도르, 이라크, 러시아 콩고민주공화국 <sup>1)</sup> , 카자흐스탄 <sup>2)</sup> , 콜롬비아 <sup>2)</sup>	멕시코 <sup>2)</sup> , 인도네시아 <sup>2)</sup> , 알제리 <sup>2)</sup> , 오만, 이란	UAE, 말레이시아 카타르, 사우디, 쿠웨이트
평 점(3.0점) 및 진단결과 <sup>4)</sup>	2.3점 초과 	1.6~2.3점 	1.6점 미만 	-
정 의	단기적 부도발생 가능성	중장기적 부도발생 가능성	낮은 부도발생 가능성	국제신용평가 A-등급 이상

주: 1) 구제금융 요청, 국제신용평가등급 괴리도를 고려해 국가분류를 1단계 상향 조정

2) 거시경제 안정도, 국제신용평가등급 괴리도를 고려해 국가분류를 1단계 하향 조정

3) 국제신용평가사가 A-등급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어 기타국으로 분류

4) : 고위험국, : 중위험국, : 저위험국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 (2) 위험진단과 정책대응

### 가. 고위험 국가: 2개국

#### 1) 진단결과

#### □ 베네수엘라, 아제르바이잔이 고위험 국가에 해당

○ 베네수엘라는 저유가에 따른 급격한 재정수입 감소, CDS 프리미엄 급등(4,408bps), 아제르바이잔은 긴급 구제금융 요청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국으로 진단하며 단기적으로 부도발생 가능성이 있음

- (베네수엘라) 하이퍼인플레이션('15년 159.1%, '16년 204.1% 추정), 마이너스 성장('15년 -10.0%, '16년 -6.0% 추정) 등 경제난과 더불어, 2016년 10~11월 50억 달러 외채만기 도래\* 등 외환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 '15년 총 외채 1,605억 달러, 단기외채 322억 달러, 단기외채/외환보유액 897.2% D.S.R. 46.8%을 기록하는 등 외채상환능력이 매우 부진

- (아제르바이잔) 저유가 쇼크에 따른 환율급등(99.7%), 재정건전성 악화 (-7.9%), 외채부담 가중\*에 따라, 2016년 1월 IMF·세계은행 앞 40억 달러의 구제금융 요청 등을 이유로 고위험국으로 분류함.

\* 달러 표시 정부외채(69억 달러, '15. 12월)는 저성장 및 마나트화 가치 절하에 따라 2015년 1월 GDP의 8.6%에서 2015년 12월 19.8% 상승

<연도별 부도위기 지표>

(단위: %, bps)

구 분	베네수엘라		아제르바이잔	
	'15 <sup>e</sup>	'16 <sup>t</sup>	'15 <sup>e</sup>	'16 <sup>t</sup>
총외채/GDP	29.3	22.4	20.3	20.5
단기외채/외환보유액	897.2	-	-	-
D.S.R.	46.8	42.0	5.9	6.3
재정수지/GDP	-24.4	-25.0	-7.9	-3.7
공공부채/GDP	48.6	48.6	16.1	-
원유의존도	92.0	-	83.0	-
환율변동률	0.0	-	▲ 99.7	-
CDS스프레드	▲ 4,408.7	-	-	-
평점 및 진단결과	2.60		2.57	

출처: IMF, OECD, EIU, Bloomberg

□ 재정수입의 원유 의존도가 높은 산유국의 신용등급 일제히 강등

- 2014년 12월 이후 국제신용평가 3사는 베네수엘라의 등급을 지속적으로 하향조정하였으며, 2016년 3월 Fitch는 외환보유액 급감을 이유로 아제르바이잔 등급을 투기등급인 BB+로 강등함.

<신용평가기관별 신용등급 현황>

구분	OECD	S&P <sup>주)</sup>		Moody's		Fitch	
	Rating	Rating	Outlook	Rating	Outlook	Rating	Outlook
베네수엘라	7			Caa3	Stable	CCC	-
아제르바이잔	5			Ba1	Stable	BB+	Negative

주: S&P 신용정보 외부 활용 불가 방침에 따라 비공개 처리

출처: OECD, Bloomberg, Moody's, Fitch

2) 정책대응

□ 재정·환율정책 실시 등 위기 타개책 적극 마련

- 부도위험 양상이 심화됨에 따라 재정수입 확충, 환율제도 개편, 외환통제 정책 시행 등 강도 높은 위기극복 방안을 시행함.

- (베네수엘라) 2016년 2월 20년 만에 최초로 휘발유가격을 60배 이상 인상하고 환율체제를 단순화하는 한편, 2016년 2월 변동환율제로 전환함.

※ 균형재정을 위한 원유가격은 배럴당 151달러('15년)로 산유국 중 가장 높은 수준  
<첨부 5: 산유국별 균형재정을 위한 석유가격>

- (아제르바이잔) 환율방어에 따른 외환보유액 급감 후 2015년 12월 환율 페그제를 폐지하고 외화유출액 과세 등 자본통제를 시행함. 또한, 국유 에너지 기업 매각으로 올해 중 1억 마나트(약 6.5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계획임.

## 나. 중위험 국가: 9개국

### 1) 진단결과

#### □ 앙골라, 브라질, 나이지리아 등 9개국이 중위험국으로 분류

○ 앙골라 등은 재정적자 심화, CDS 프리미엄 및 환율 급등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부도발생 가능성이 있음.

- (앙골라, 카자흐스탄) 경기침체와 재정수입 감소로 각각 전년동기 대비 51.8%, 99.2%로 환율이 급등함. 특히 카자흐스탄은 환율방어로 인한 외환 보유액 급감\*으로 2015년 8월 달러 페그제를 포기함.

\* 293.3억 달러('12.12월) → 206.3억 달러('15.8월)

- (브라질, 콜롬비아) 유가와 더불어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쌍둥이 적자폭 확대가 지속됨. 특히, 브라질은 미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표시 채무상환 부담('15.2분기 기준 \$1,365억 달러)이 가중되고 있음.

※ 브라질은 국영석유기업 Petrobras社의 부정부패 스캔들로 '15년 9월 사상 최고 환율(4.18헤알/달러) 및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상회하는 CDS 프리미엄(539bps) 경신

- (나이지리아) 최대 원유수입국인 미국의 수입중단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2016년 1월 세계은행(25억 달러) 및 아프리카개발은행(10억 달러) 앞 긴급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함.

- (에콰도르, 콩고민주공화국) 에콰도르는 달러 공용화 시행으로 독립적 통화·환율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며, 콩고민주공화국은 77%에 달하는 원유 의존도에 따라 쌍둥이 적자, 저성장 등 거시경제지표가 악화됨.

- (이라크, 러시아) 이라크는 IS 사태로 인한 국방비 증가로 재정적자를 지속 중이며, 러시아는 서방 경제제재 타격 및 시리아 내전을 둘러싼 터키와의 갈등으로 환율이 급등함.

<연도별 부도위기 지표>

(단위: %, bps)

구 분	앙골라		브라질		나이지리아		에콰도르		
	'15 <sup>e</sup>	'16 <sup>f</sup>							
총외채/GDP	27.0	29.2	36.2	36.5	4.9	5.1	31.9	35.9	
단기외채/외환보유액	7.6	-	34.5	-	32.8	-	74.3	-	
D.S.R.	10.0	11.4	30.0	28.8	0.7	0.8	29.6	29.8	
재정수지/GDP	-3.5	-1.4	-7.7	-7.2	-3.9	-3.2	-5.1	-3.7	
공공부채/GDP	38.8	38.8	72.0	71.4	11.9	11.8	37.4	40.4	
원유의존도	95.8	-	7.4	-	74.5	-	42.8	-	
환율변동률	▲51.8	-	▲41.4	-	▲3.6	-	0.0	-	
CDS스프레드	-	-	▲250	-	▲355	-	-	-	
평점 및 진단결과	2.23	●	2.20	●	2.07	●	2.04	●	
이라크		러시아		콩고민주공화국		카자흐스탄		콜롬비아	
'15 <sup>e</sup>	'16 <sup>f</sup>								
36.5	35.0	45.0	41.4	20.6	21.8	79.8	78.6	32.2	30.4
6.0	-	18.0	-	10.2	-	40.2	-	28.6	-
13.0	2.3	32.2	18.4	2.4	4.6	54.9	60.3	30.6	24.5
-23.1	-17.7	-5.7	-3.9	1.9	1.2	-3.2	-0.2	-3.1	-3.0
68.5	72.6	18.8	20.2	18.0	17.9	18.1	20.5	45.1	44.0
92.1	-	54.3	-	77.8	-	60.9	-	40.6	-
▲0.5	-	▲21.8	-	▲0.5	-	▲99.2	-	▲44.0	-
▲923.3	-	▼124.1	-	-	-	▲40.8	-	▲185.8	-
2.00	●	1.99	●	1.91	●	1.60	●	1.60	●

출처: IMF, OECD, EIU, Bloomberg

□ 원유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유국의 신용등급 일제히 강등

- 2016년 3월 Moody's는 앙골라, 나이지리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산유국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검토에 착수했으며, Fitch는 브라질, 나이지리아 등을 투자부적격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음.
- (브라질) 2015년 하반기 이후 Fitch로부터 정크등급, Moody's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을 상실하고 '부정적' 전망을 유지하고 있음.
- (나이지리아) 신용평가 3사는 유가하락에 따른 대외경제 타격과 더불어, 정치·사회불안으로 2015년 중 신용등급 및 전망을 지속 강등해 옴.
- (러시아) 저유가 지속에 따른 루블화 가치 하락, 대러 제재로 인한 경제성장률 저하로 투자부적격등급 또는 투자적격등급의 최하위등급이 부여되었고, 2016년 2월 Fitch 및 Moody's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함.
- (콜롬비아) 2016년 2월 Moody's는 콜롬비아 국영 석유기업을 최하위 투자적격등급으로 부여함.

<신용평가기관별 신용등급 현황>

구분	OECD	S&P <sup>주)</sup>		Moody's		Fitch	
	Rating	Rating	Outlook	Rating	Outlook	Rating	Outlook
앙골라	5			Ba2	Negative	B+	Stable
브라질	4			Ba2	-	BB+	Negative
나이지리아	5			Ba3	Stable	BB-	Negative
이라크	7			-	-	B-	Stable
에콰도르	6			B3	Stable	B	Stable
러시아	4			Ba1	Stable	BBB-	Negative
콩고 민주공화국	7			B3	Negative	B+	Negative
카자흐스탄	5			Baa2	Stable	BBB+	Stable
콜롬비아	4			Baa2	Stable	BBB	Stable

주: S&P 신용정보 외부 활용 불가 방침에 따라 비공개 처리  
출처: OECD, Bloomberg, Moody's, Fitch

## 2) 정책대응

### □ 자산 매각을 통한 재정확충 노력 등 적극적 대내외 정책 시행

- 각국 정부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인 수출 다각화 전략 등을 추진함.
  - (브라질) Petrobras社의 자산 매각, 비용 절감으로 경영난을 해소하고, 석유 산업의 국산품 의무사용 규정 완화로 석유·가스부문의 투자활성화를 추진함.
  - (이라크, 러시아) 양국은 소비세 인상 등 재정확충 노력을 하는 한편, 러시아는 사우디와 산유량 동결에 합의함.
  - (에콰도르) 현지화 지급률 확대, 관세인상 등 외환통제를 강화하였고, 2014년 6월 유로본드 발행(20억 달러, 7.95% 금리), 중국차관 요청 등 외부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음.
  - (콩고민주공화국) 석유산업의 외국인투자 감소에 대응하여 건설업, 농·어업 부문 육성을 통해 성장동력을 다각화하고자 함.
  - (카자흐스탄) 국부펀드 활용, 오일머니 회수 등으로 재정을 확충하고, 2015년 11월 WTO가입으로 무역활성화와 시장개방을 추구함.

## 다. 저위험 국가: 5개국

### 1) 진단결과

#### □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이 저위험국에 해당

○ 멕시코, 인니, 알제리는 CDS 프리미엄 급등, 환율 최고치 경신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양상이 심화되었으나, 양호한 경제여건, 국제신용도 평가등급을 감안하여 저위험 국가로 분류함.

- (멕시코) 유가하락, 미국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환율이 사상 최고치(19.126 페소화/달러, '16.2.12)를 경신하였으나, 즉각적인 정책대응, 풍부한 외환보유액, 양호한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저위험 국가로 평가함.

※ '14년 기준 월평균수입(개월수) 대비 외환보유액이 4.8개월로 외채건전성 양호

<연도별 부도위기 지표>

(단위: %, bps)

구 분	멕시코		인도네시아	
	'15 <sup>e</sup>	'16 <sup>f</sup>	'15 <sup>e</sup>	'16 <sup>f</sup>
총외채/GDP	41.4	41.3	36.2	35.6
단기외채/외환보유액	58.0	57.9	68.4	-
D.S.R.	15.9	15.1	23.1	23.1
재정수지/GDP	-4.0	-3.5	-2.3	-2.3
공공부채/GDP	47.8	48.9	26.8	26.8
원유의존도	10.7	-	13.9	-
환율변동률	▲ 28.2	-	▲ 5.3	-
CDS스프레드	▲124.8	-	▲117.0	-
평점 및 진단결과	1.58		1.51	

구 분	알제리		오만		이란	
	'15 <sup>e</sup>	'16 <sup>f</sup>	'15 <sup>e</sup>	'16 <sup>f</sup>	'15 <sup>e</sup>	'16 <sup>f</sup>
총외채/GDP	2.4	2.0	19.4	18.5	2.9	3.2
단기외채/외환보유액	1.5	-	24.6	-	7.4	-
D.S.R.	0.2	0.2	2.7	2.5	3.3	2.8
재정수지/GDP	-13.7	-11.2	-17.7	-20.0	-2.9	-1.6
공공부채/GDP	9.0	8.9	8.6	9.6	16.1	14.8
원유의존도	97.4*	-	77.5*	-	57.2	-
환율변동률	▲12.3	-	0.0	-	▲1.0	-
CDS스프레드	▲70.9	-	-	-	-	-
평점 및 진단결과	1.46		1.42		1.39	

\* 에너지 수출의존도

출처: IMF, OECD, EIU, Bloomberg

- (인도네시아) 원유생산 대비 높은 소비\*로 인한 수입비용 절감 이득은 있으나, 석유·천연가스 사업발주 축소 및 국내 원유생산 감소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험 등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

\* '14년 원유생산량 및 소비량: 852천 b/d, 1,641천 b/d

- (알제리, 오만) 각각 97%, 77%의 높은 원자재 수출의존도에 따라 높아 저성장, 재정난의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으나 외채 및 부채 수준이 비교적 양호하여 국가부도 위기 가능성이 낮음.

- (이란) 2015~16년 예산안 편성 당시 기준 유가 대비 1/2 수준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재정적자 발생이 불가피하나, 공공부채 수준 등이 상당히 양호하고 경제제재 해제에 힘입어 원유수출량도 증가하고 있음.

※ 특히, 경제제재 조치로 동결되었던 1,000억 달러 규모의 해외자산 유입 등으로 외채상환부담이 축소되는 등 대외건전성 개선 전망

□ 저유가에 따른 산유국별 충격 정도에 따라 신용등급 및 전망 차등 부여

○ 국제신용평가사는 멕시코, 오만에 투자적격등급을 부여한 반면, S&P는 인니에 대해서는 투자부적격등급을 부여함.

- (인도네시아) 2015년 5월 S&P는 정책효율성 증대 등을 이유로 전망을 '긍정적'으로 상향조정하여 1년 이내 등급 개선 가능성을 시사함.

<신용평가기관별 신용등급 현황>

구분	OECD	S&P <sup>주)</sup>		Moody's		Fitch	
	Rating	Rating	Outlook	Rating	Outlook	Rating	Outlook
멕시코	3			A3	Stable	BBB+	Stable
인도네시아	3			Baa3	Stable	BBB-	Stable
알제리	3			-	-	-	-
오만	3			A3	Negative	-	-
이란	7			-	-	-	-

주: S&P 신용정보 외부 활용 불가 방침에 따라 비공개 처리

출처: OECD, Bloomberg, Moody's, Fitch

## 2) 정책대응

### □ 통화정책 시행, 재정확보 방안 적극 마련

- 경기부양, 환율방어 등을 위하여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광물 수출세 인상 등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함.
- (멕시코) 2015년 11월 자금유출 방지와 페소화 약세 중단을 위해 정책금리 인상(3.00%→3.25%→3.75%), 외환시장 개입방식 변경(준직·간접→재량·직접), 재정목표 설정(재정적자/GDP 0.5% 이내)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함.
- (인도네시아) 경기부양을 위해 2개월 연속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인하\* 하고, 제조업 세제혜택 및 석유·천연가스 부문 인센티브를 부여함.  
\* 기준금리 7.5%(15.2월)→7.25%(16.1월)→7.0%(16.2월), 지급준비율 7.5%(15.11월)→6.5%(16.2월)
- (알제리, 오만) 산업용 가스가격과 광물수출세 인상, 연료보조금 삭감 등 재정확보 중이며, 축적된 오일머니로 기 발주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함.
- (이란)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경제제재 해제 이후 석유·가스 부문의 역내투자 증진과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非석유 부문의 투자로 원유의존도 축소, 산업체질 개선 등을 추진 중임.

## 라. 기타 국가: 5개국

### 1) 진단결과

#### □ 사우디 등은 국제신용평가사 A-등급 이상으로 기타국으로 분류

- 장기간 축적해온 오일머니에도 불구하고 저유가 기조로 재정여력이 감소하고 있으나, 양호한 국제신용평가로 기타국에 해당함.
- (UAE, 카타르, 쿠웨이트) 타 산유국 대비 낮은 생산단가로 원유를 생산함에 따라 저유가 기조의 충격 여파가 상대적으로 적고, 기존 국부펀드 등을 활용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링깃화 환율은 1997년 외환위기 수준으로 상승(15.6%)하였으며, CDS프리미엄 급등, 외환보유액 감소 등으로 자금유출 가능성이 높음.

- (사우디) 3년 만에 순해외자산이 최저치(6,400억 달러, '15. 10월)를 기록하고, 예멘 내전과 IS 공습 참여에 따른 국방비 증가로 재정과 부채부담이 가중\*됨.

\* '15년 6월, 53억 달러 규모의 국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였고, 동년 10월에는 외환보유액 70억 달러로 재정적자를 보전

<연도별 부도위기 지표>

(단위: %, bps)

구 분	UAE		말레이시아		카타르	
	'15 <sup>e</sup>	'16 <sup>f</sup>	'15 <sup>e</sup>	'16 <sup>f</sup>	'15 <sup>e</sup>	'16 <sup>f</sup>
총외채/GDP	58.7	56.0	54.7	53.5	80.6	79.9
단기외채/외환보유액	77.7	-	48.3	-	46.5	-
D.S.R.	29.7	28.7	12.2	11.9	11.2	11.4
재정수지/GDP	-5.5	-4.0	-3.5	-3.2	4.5	-1.5
공공부채/GDP	16.4	15.2	55.9	54.6	29.8	27.0
원유의존도	63.5	-	10.3	-	97.2*	-
환율변동률	0.0	-	▲ 15.6	-	0.0	-
CDS스프레드	-	-	▲ 83.5	-	▲ 58.0	-
평점	1.57		1.44		1.30	
구 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15 <sup>e</sup>	'16 <sup>f</sup>	'15 <sup>e</sup>	'16 <sup>f</sup>		
총외채/GDP	15.6	15.4	34.7	35.8		
단기외채/외환보유액	6.8	-	97.0	-		
D.S.R.	5.9	5.6	6.4	6.5		
재정수지/GDP	-21.6	-19.4	1.3	0.1		
공공부채/GDP	7.8	14.5	4.4	4.2		
원유의존도	75.6	-	77.8	-		
환율변동률	0.0	-	▲ 0.1	-		
CDS스프레드	▲ 115.6	-	-	-		
평점	1.13		1.07			

\* 에너지 수출의존도

출처: IMF, OECD, EIU, Bloomberg

□ 저유가 기조에 따른 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 대두

-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유가 대비 생산원가 여력을 보유한 산유국들에 대해 A- 이상의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나, 향후 저유가 기조 장기화 시 등급 하향조정 가능성이 높음.
- (사우디) Moody's 등 신용평가사는 국가재정 축소 가능성을 이유로 신용등급 하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함.

<신용평가기관별 신용등급 현황>

구분	OECD	S&P <sup>주)</sup>		Moody's		Fitch	
	Rating	Rating	Outlook	Rating	Outlook	Rating	Outlook
UAE	2			Aa3	Stable	AA	-
말레이시아	2			A3	Stable	A-	Stable
카타르	3			Aa2	Stable	AA	Stable
사우디 아라비아	2			Aa3	Stable	AA	Negative
쿠웨이트	2			Aa2	Stable	AA	Stable

주: S&P 신용정보 외부 활용 불가 방침에 따라 비공개 처리

출처: OECD, Bloomberg, Moody's, Fitch

2) 정책대응

□ 원유생산량 조정 및 외부자금 유치를 통한 적극적인 산업다각화

- 원유생산량 조정, 에너지 보조금 삭감 등으로 재정수입 확보와 함께 국부펀드, 국채 발행을 통해 비석유부문의 산업다각화 정책을 추진함.
- (사우디) 53억 달러 규모 국채 발행(15.6월), 주식시장 개방을 통한 화학·운송부문 자금유치 등 제조업 육성정책을 실시함.
- (쿠웨이트) 2014년 10월 휘발유 보조금을 삭감한 데 이어 1,000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를 조성하여 전력 등 비원자재 부문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 Ⅲ. 우리나라와의 관계

#### □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높은 중점 모니터링 대상국 선정

- (선정기준) 수출입 무역규모('15년말 기준, 수출액 10억 달러 이상), 해외 직접투자('15년말 누적, 10억 달러 이상)를 적용 함.

<첨부 6: 우리나라의 대산유국 수출 동향>

※ 국제신용평가사 등급이 A-등급 이상이거나 저위험국가인 경우 중점 모니터링 대상국 선정에서 제외

- (선정결과) 총 21개 산유국 중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앙골라, 브라질, 러시아 등 9개 중점 모니터링 대상국을 선정함.

<첨부 7: 중점 모니터링 대상국 선정 지표>

<우리나라와의 관계 및 중점 모니터링 대상국>

국 가	수출입(백만 달러)		해외직접투자 (백만 달러)
	수출 <sup>주)</sup>	수입 <sup>주)</sup>	
아제르바이잔	122.9 (-54.4)	3.4 (6,254.5)	5.3
앙골라	1,858.8 (3.3)	142.5 (-4.9)	10.3
브라질	5,494.8 (-38.4)	4,058.7 (-17.3)	6,583.3
나이지리아	685.8 (-50.2)	1,123.5 (-63.7)	296.5
에콰도르	641.3 (-21.0)	254.7 (-28.3)	47.5
이라크	1,427.7 (-20.6)	6,265.7 (-6.3)	354.6
러시아	4,685.7 (-53.7)	11,308.3 (-27.8)	2,329.5
콩고민주공화국	26.5 (3.3)	301.6 (15.4)	8.7
카자흐스탄	454.5 (-49.9)	305.0 (-45.6)	2,572.7
콜롬비아	1,129.0 (-25.2)	323.5 (-46.8)	322.6

주: ( )는 전년 대비 증감률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 IV. 경제·산업 파급 영향

##### □ (세계경제) 저유가 장기화 시 개도국 경제에 더욱 부정적

- (선진국) 저유가 기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미국, EU 등 선진국 경제에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저유가로 미국계 석유기업 실적 악화\*, 투자사업 취소·연기, 파산 신청\*\* 급증 등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 미국 5대 독립계 석유기업<sup>2)</sup>의 '15년 3분기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나 저유가로 이익이 대폭 낮아지면서 모두 적자로 전환
  - \*\* '15년 세계 58개 석유기업이 파산신청을 하였고 이 중 40개가 미국 기업으로 추정
  - S&P는 투기등급 B 이하 석유기업들이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고, Fitch도 에너지기업의 부도율이 11%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함.
- (개도국) 베네수엘라 등 원유수출국은 부도위험 증대와 함께 경기 침체도 심해질 것으로 보이나, 원유수입국의 경우 저유가가 경상수지 개선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원유수출국) 베네수엘라, 아제르바이잔은 국가부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브라질, 이라크, 알제리,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재정난이 가중되는 등 저유가 스트레스(Low Oil Stress)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저유가에 따른 파급영향>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2) ConocoPhillips, Anadarko, Occidental Petroleum(Oxy), Hess, Whiting

- (원유수입국) 인도 등 아시아 개도국 경제는 저유가로 인해 경상수지 개선, 연료보조금 부담 감소로 인한 재정적자폭 축소, 기업의 생산원가 절감, 물가하향 안정화 등의 수혜가 예상된다.

※ 다만, 만약 베네수엘라 국가부도가 발생되고 주요 산유국 부도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경우 투자심리 위축, 무역규모 감소 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도 상존

□ (한국경제) 저유가 지속 시에는 국내 경제·산업에 타격 예상

○ (성장률) 단기적으로는 저유가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기업 생산 비용 감소 등이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유가 10% 하락 시 수입액 감소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실질 구매력 향상, 소비 확대 등으로 GDP가 0.27%p 개선(현대경제연구원, '16.1월)되고, 제조업 생산비는 1.03%p 감소(기획재정부, '15.1월)하는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저유가 장기화에 따른 산유국 부도위험이 증대되고 부도가 현실화 될 경우 전세계적 무역규모 감소, 신흥국 환율급등에 따른 금융 불안 야기 등으로 국내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15년 수출액은 5,269억 달러로 전년 대비 8% 하락하였고, '16년 1월 수출액도 367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8.5% 하락(산업통상자원부)

<신흥국 지역별 수출 및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추이>

(백만 달러, %)

지역	'15년 평균	'15.10월	'15.11월	'15.12월	'16.1월
중 동	30,448	2,287	2,361	2,673	1,743
	-12.5	-25.7	-24.1	-15.1	-31.1
중남미	30,675	2,421	2,621	1,955	2,075
	-14.5	-34.8	-22.9	-34.9	-35.8
C I S	7,086	658	460	544	425
	-49.9	-35.0	-46.8	-31.1	-22.0

출처: 산업통상자원부('16.1월)

○ (국내산업) 정유·석유화학은 중립적, 자동차는 수혜가 기대되나 조선·해양플랜트, 해외건설, 일반기계 등은 부정적임.

- (정유) 저유가에 따른 제품가격 하락으로 수출액이 감소\*했으나, 수요 증가로 높은 제품마진률을 기록함. 다만, 향후 중국·인도의 자급률 제고, 사우디 등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수출과 수익성에 부정적임.

\* '13년 수출액은 571억 달러였으나 '15년에는 전년 대비 36.9% 하락한 321억 달러 기록

- (석유화학) 수출액은 급감\*하였으나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 하향안정화로 국내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됨. 그러나, 동 제품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중국의 저성장과 자급률 상승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13년 수출액은 484억 달러였으나 '15년에는 전년 대비 21.6% 하락한 378억 달러 기록

- (해외건설) 아시아 수주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해외 수주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동 등 산유국의 채산성 악화와 재정수입 감소로 원유개발 계획이 취소되며 건설·플랜트 수주액\*이 급감함.

\* 플랜트 수주액 추이: 396억 달러('13년) → 517억 달러('14년) → 265억 달러('15년)

※ 이란 개방과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 따른 수주 증가 기대감이 존재하나 저유가에 따른 중동 수주 감소분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 (조선·해양플랜트) 저유가 지속으로 친환경·고효율 선박인 에코십 수요가 위축되고 신조선 수주\*도 급감하고 있음. 아울러 선주들의 해양플랜트 인도 거부·연기 요구 등으로 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음.

\* 329억 달러('14년) → 218억 달러('15년) → 170억 달러('16년<sup>1)</sup>)

- (일반기계) 국내 일반기계 최대 수출품인 건설광산기계가 해외건설업 부진으로 급감하였으며, 내연기관, 냉동공조, 공작기계 등도 5% 내외의 성장에 그치는 등 건설기계 부진이 기타 주력품목에도 영향을 줌.

※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시장 진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남미,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수출부진으로 향후 전체 증가율은 3% 내외로 제한적

- (자동차) 미국·EU 등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기대되나, 산유국 경기부진 우려로 수출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489억 달러('14년) → 458억 달러('15년) → 472억 달러('16년<sup>1)</sup>)

<저유가에 따른 국내 주요 산업별 영향>

구분	영향 <sup>주)</sup>	상세내용
정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액 하락에도 제품마진 제고로 수익성 확보</li> <li>· 경쟁국의 자급률 상승 등은 향후 기업실적에 부담</li> <li>· 인도 정유능력이 '09년 이후 연평균 20만 b/d씩 증가</li> <li>☞ '13년 한국을 제치고 아시아 1위 휘발유 수출국가로 부상</li> </ul>
석유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나프타 가격 안정화 등으로 수익성 개선</li> <li>· 향후 중국 자급률 상승 등은 기업실적에 부정적</li> <li>☞ 중국 3대 유도품인 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 자급률이 '10년 64.9%에서 '12년 71.6%, '14년에는 79.1%로 급증</li> </ul>
해외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건설의 50%를 상회하는 중동 지역 수주 위축</li> <li>☞ '15년 수주액이 전년 대비 약 49% 감소한 165억 달러</li> <li>· 아시아는 '15년 전년 대비 약 25% 증가한 197억 달러 기록</li> </ul>
조선·해양플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코십 투자 침체로 '15년 선박 수주액 약 34% 급감</li> <li>· '15년중 저유가로 드릴쉽, FPSO 신조선 수요 전무</li> </ul>
일반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건설경기 부진으로 건설광산 기계 수출 약 24% 감소</li> <li>· 향후 저유가와 전세계 저성장 기조로 수출부진 지속</li> </u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국 앞 수출은 호조세 지속 예상</li> <li>· 신흥국은 저유가에 따른 경기부진으로 수출증가는 제한적</li> </ul>

주:  : 긍정적,  : 중립적,  : 부정적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각종 언론기사 등을 참고하여 재작성

## V. 전망 및 우리의 대응방안

### (1) 전망

#### □ (단기) 원유 초과공급 지속 등으로 배럴당 30~50달러 예상

- 국제유가는 미국 셰일오일 생산량 감소와 원유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유 초과공급 지속으로 향후 1~2년까지 배럴당 30~50달러가 예상된다.
  - 2016년 중 수급불균형 상황에서 이란의 생산과 함께 2014년부터 누적된 재고까지 시장에 유입 시 2017년까지 재고소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수요측면) 저유가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 효과에 힘입어 비OPEC의 수요가 증가하며 전년에 이어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2016년은 전년 대비 142만 b/d 증가한 9,519만 b/d, 2017년에도 142만 b/d 증가한 9,661만 b/d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
- (공급측면) 비OPEC국 생산·투자 축소 가시화에도 불구하고 OPEC 감산합의 지연, 이란 공급 개시 등으로 공급과잉\*이 유지될 것으로 보임.
  - \* '15년 석유공급은 수요를 53만 b/d 초과하였고 '16년에도 72만 b/d 초과할 전망
  - 미국 셰일업체 등 비OPEC 석유업체들은 감산합의에서 제외되어 있어 감산에 따른 비OPEC 업체들의 반사이익이 합의에 걸림돌로 작용함.
  - ※ 사우디는 최근 생산정책으로 미국 셰일업체 부도 리스크 증가, 비OPEC 고비용 유전 폐쇄 등 경쟁상대에 대한 견제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판단

#### <주요 기관별 국제유가 전망>

(단위: US\$/배럴)

구 분	'15 <sup>e</sup>	'16 <sup>f</sup>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균
WTI <sup>1)</sup>	48.67	33.11	36.02	39.02	42.02	37.54
Brent <sup>1)</sup>	52.32	32.81	36.02	39.02	42.02	37.52
Dubai <sup>2)</sup>	50.73	-	-	-	-	26.81

주: 1) '16.2.9자 EIA STEO(단기전망) 수치

2) '16.2.10자 OPEC Monthly Oil Market Report

출처: EIA, OPEC

## □ (중장기) 석유개발 투자 축소 등에 힘입어 배럴당 50달러 상회 전망

- 석유개발 투자 감축, 원유수급 안정화 등에 힘입어 2020년 중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됨.
- IEA는 석유개발 투자 감소로 2015년 투자규모가 전년 대비 20% 축소하였고 올해에도 12% 이상 감소하여 2020년 중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함.
-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저유가 장기화로 인한 주요 산유국들의 재정부담, 환율상승 등이 산유국 부도위험을 가중시켜 유가안정을 위한 감산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 다만, 회원국별 원유 생산정보의 불투명, 감산합의 위반 시 제재규정 미비 등은 원활한 합의도출에 걸림돌로 작용
- 다만, 향후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 도입, 전기차 상용화를 통한 연비기술 혁신 등이 석유수요를 감소시켜 과거와 같은 고유가 수준으로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2) 우리의 대응방안

### 가. 정부

####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조정 노력 필요

- 정부는 우리기업이 향후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저유가에 따른 성과부진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하는 등 산업체질 개선을 강구해야 함.
- 실례로, 정유·석유화학의 경우 향후 글로벌 공급경쟁 심화가 예상되므로 경쟁력이 없는 범용사업 부문 축소 및 폐쇄, 생산기술 향상을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사업구조 전환 등이 필요함.
- 또한, 국내 건설기업의 사업구조를 사업기획과 엔지니어링 등 수익성이 높은 분야\*로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해외건설 수주의 20%에 불과한 아시아 시장 개척도 도모해야 함.
- \* 국내 플랜트 EPC기업은 해외플랜트 수주 비중이 큰 오일·가스 플랜트에 대한 기본설계 등 핵심영역 기술경쟁력이 선진국 대비 70%에 불과

## 나. 당행

### □ 부도위험이 큰 주요 산유국에 대한 월별·상시 모니터링 실시

- 저유가 지속에 따른 산유국별 외채상환능력, 재정상태 등에 대한 월별·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여 정부와 우리기업이 산유국 부도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해야 함.
- 특히, 우리나라와 관계가 높은 앙골라, 브라질, 러시아 등 중점 모니터링 대상국에 대한 월별 모니터링을 통하여 우리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에 기여할 계획임.

### □ 전략적 M&A를 지원하여 우리기업의 수익모델 확보에 기여

- 저유가 기조 하에서 M&A 등 다양한 해외투자 방식을 선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기업의 원천기술과 수익모델 확보에 기여해야 함.
- 최근 파산위기에 처한 미국 등 세계 석유기업들에 대한 전략적 M&A를 고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저유가 시기의 국가별 M&A 사례>

구분	일자	상세내용
네덜란드·영국 로열더치셸	'15.4월	· (M&A) 세계 최대 LNG 생산업체 영국 BG 그룹을 793억 달러에 인수하여 주력사업 위주로 재편 시도
중국 Yantai Xinchao Industry <sup>(*)</sup>	'15.10월	· (M&A) 미국 Tall City Exploration 및 Plymouth Petroleum 으로부터 총 13억 달러 상당의 셰일 자산을 인수

주: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로 석유업계와 무관한 민간 기업들이 미국 내 유망 셰일 자산을 잇달아 인수하고 있는 추세

출처: 각종 언론기사 등을 참고하여 재작성

문의 : 해외경제연구소 지역연구팀  
 책임조사역 박종국 (02-6255-5704)  
 parkjk@koreaexim.go.kr  
 조사역 장은진 (02-6255-5716)  
 eunjin@koreaexim.go.kr

< 첨부 1 >

## 주요 산유국 거시경제 지표

(단위: %)

분류	국 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상수지/GDP	
		'15 <sup>e</sup>	'16 <sup>f</sup>	'15 <sup>e</sup>	'16 <sup>f</sup>	'15 <sup>e</sup>	'16 <sup>f</sup>
고위험국	베네수엘라	-10.0	-6.0	159.1	204.1	-3.0	-1.9
	아제르바이잔	4.0	2.5	5.0	4.2	3.0	2.7
중위험국	앙골라	3.5	3.5	10.3	14.2	-7.7	-5.6
	브라질	-3.8	-3.5	8.9	6.3	-4.0	-3.8
	나이지리아	4.0	4.3	9.1	9.7	-1.8	-1.2
	에콰도르	-0.6	0.1	4.1	2.9	-2.6	-2.8
	이라크	0.0	7.1	1.9	3.0	-12.7	-11.0
	러시아	-3.8	-0.6	15.8	8.6	5.0	5.4
	콩고민주공화국	8.4	7.3	1.0	1.7	-7.7	-8.0
	카자흐스탄	1.5	2.4	6.3	8.6	-3.0	-4.1
	콜롬비아	2.5	2.8	4.4	3.5	-6.2	-5.3
저위험국	멕시코	2.5	2.6	2.8	3.0	-2.4	-2.0
	인도네시아	4.7	5.1	6.8	5.4	-2.2	-2.1
	알제리	3.0	3.9	4.2	4.1	-17.7	-16.2
	오만	4.4	2.8	0.4	2.0	-16.9	-24.3
	이란	0.8	4.4	15.1	11.5	0.4	1.3
기타 국가	UAE	3.0	3.1	3.7	3.0	2.9	3.0
	말레이시아	4.7	4.5	2.4	3.8	2.2	2.1
	카타르	4.7	4.9	1.6	2.3	5.0	-4.5
	사우디아라비아	3.4	2.2	2.1	2.3	-3.5	-4.7
	쿠웨이트	1.2	2.5	3.3	3.3	9.3	7.0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16.1

< 첨부 2 >

## 산유국 부도위험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항목	가중치	구 분		
			고위험국 <sup>1)</sup>	중위험국 <sup>2)</sup>	저위험국 <sup>3)</sup>
외채상환태도 (50%)	총외채/ GDP	40%	50% 초과	20~50%	20% 미만
	단기외채/ 외환보유액	30%	100% 초과	50~100%	50% 미만
	D.S.R.	30%	15% 초과	10~15%	10% 미만
재정능력 (30%)	재정수지/ GDP	40%	-10% 미만	-10~0%	0% 이상
	공공부채/ GDP	30%	20% 초과	10~20%	10% 미만
	원유의존도	30%	50% 초과	20~50%	20% 미만
금융시장변동 (20%)	환율변동률	50%	30% 초과	10~30%	10% 미만
	CDS변동폭	50%	100bps 초과	50~100bps	50bps 미만
평가값			3점	2점	1점
종합평점(3.0점)			2.3점 초과	1.6~2.3점	1.6점 미만

- 주: 1) 단기적으로 부도발생 가능성이 있는 산유국을 지칭  
 2) 중장기적으로 부도발생 가능성이 있는 산유국을 지칭  
 3) 부도발생 가능성이 낮은 산유국을 지칭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 첨부 3 >

**평가대상 산유국의 석유 생산량 및 매장량**

구분	생산량			매장량		
	국가	순위 <sup>주)</sup>	생산량 (천배럴/일)	점유율 (%)	순위	매장량 (10억배럴)
사우디아라비아	2	11,505.0	12.9	2	267.0	15.7
러시아	3	10,838.0	12.7	6	103.2	6.1
UAE	6	3,712.0	4.0	8	97.8	5.8
이란	7	3,614.0	4.0	4	157.8	9.3
이라크	8	3,285.0	3.8	5	150.0	8.8
쿠웨이트	9	3,123.0	3.6	7	101.5	6.0
멕시코	10	2,784.0	3.3	18	11.1	0.7
베네수엘라	11	2,719.0	3.2	1	298.3	17.5
나이지리아	12	2,361.0	2.9	11	37.1	2.2
브라질	13	2,346.0	2.7	15	16.2	1.0
카타르	14	1,982.0	2.0	13	25.7	1.5
앙골라	17	1,712.0	1.9	12	30.0	1.8
카자흐스탄	17	1,701.0	1.9	17	12.2	0.7
알제리	18	1,525.0	1.6	16	12.7	0.7
콜롬비아	19	990.0	1.2	33	2.4	0.1
오만	20	943.0	1.1	23	5.2	0.3
인도네시아	22	852.0	1.0	27	3.7	0.2
아제르바이잔	24	848.0	1.0	20	7.0	0.4
말레이시아	26	666.0	0.7	26	3.8	0.2
에콰도르	28	556.0	0.7	19	8.0	0.5
콩고민주공화국	33	281.0	0.3	37	1.6	0.1

주: 생산량 기준으로 순으로 나열

출처: BP

< 첨부 4 >

## 전세계 주요 산유국 부도위험 평가지표

(단위: %)

국가 <sup>1)</sup>	총외채/ GDP	단기외채/ 외환보유액	D.S.R	재정수지/ GDP	정부부채/ GDP	원유 의존도 <sup>2)</sup>	환율 변동률 <sup>4)</sup>	CDS 변동폭 <sup>5)</sup>
베네수엘라	29.3	897.2	46.8	-24.4	48.6	92.0	0.0	4,408.7
아제르바이잔	20.3	-	6.0	-7.9	16.1	83.0	99.7	-
앙골라	27.0	7.6	10.0	-3.5	38.8	95.8	51.8	-
브라질	36.2	34.5	30.0	-7.7	72.0	7.4	41.4	275.0
나이지리아	4.9	32.8	0.7	-3.9	11.9	74.5	3.6	355.5
에콰도르	31.9	74.3	29.6	-5.1	37.4	42.8	0.0	-
이라크	36.5	6.0	5.6	-23.1	68.5	92.1	0.5	923.3
러시아	45.0	18.0	32.2	-5.7	18.8	54.3	21.8	-124.1
콩고민주공화국	20.6	10.2	2.4	1.9	18.0	77.8	0.5	-
카자흐스탄	79.8	40.2	54.9	-3.2	18.1	60.9	99.2	40.8
콜롬비아	32.2	28.6	30.6	-3.1	45.1	40.6	44.0	185.8
멕시코	41.4	58.0	15.9	-4.0	47.8	10.7	28.2	124.8
인도네시아	36.2	68.4	23.1	-2.3	26.8	13.9	5.3	117.0
알제리	2.4	1.5	0.9	-13.7	9.0	97.4 <sup>3)</sup>	12.3	70.9
오만	19.4	24.6	2.3	-17.7	8.6	77.5 <sup>3)</sup>	0.0	-
이란	2.9	7.4	1.7	-2.9	16.1	57.2	1.0	-
UAE	58.7	77.7	17.6	-5.5	16.4	63.5	0.0	-
말레이시아	54.7	48.3	12.2	-3.5	55.9	10.3	15.6	83.5
카타르	80.6	46.5	7.5	4.4	29.8	97.2 <sup>3)</sup>	0.0	58.0
사우디아라비아	15.6	6.8	4.9	-21.6	7.8	75.6	0.0	115.6
쿠웨이트	34.7	97.0	4.4	1.3	4.4	77.8	0.1	-

주: 1) 붉은색(고위험국), 보라색(중위험국), 초록색(저위험국), 남색(국제신용평가사 A-등급 이상)

2)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원유 수출 비중

3) 동국의 경우 원유를 포함한 에너지 수출 비중

4) '16. 2월 기준 전년 대비 환율변동율

5) '15. 2월 ~ '16. 2월 중 CDS 스프레드 최고치-최저치 간 차이

출처: IMF, EIU

< 첨부 5 >

## 산유국별 균형재정을 위한 석유가격

(단위: 달러/배럴)

구 분		'15 <sup>e</sup>	'16 <sup>f</sup>
고위험국	베네수엘라	151.0	-
	아제르바이잔	95.1	102.6
중위험국	이라크	68.1	68.8
	러시아	107.0	-
	카자흐스탄	79.4	86
저위험국	알제리	119.2	114.8
	오만	95.9	95.3
	이란	107.4	119.4
기타국가	UAE	73.8	69.5
	카타르	64.1	89.4
	사우디아라비아	87.2	86.0
	쿠웨이트	49.4	49.2

출처: IMF, MEES

< 첨부 6 >

## 우리나라의 대산유국 수출 동향

(단위: 억 달러, %)

분류	국 가	2013	2014	2015	수출액 비중 <sup>주)</sup>	3대 수출 품목
고위험국	베네수엘라	4.4	2.4	4.5	0.1	그림, 석유및화학기계, 공기조절기
	아제르바이잔	3.0	2.7	1.2	0.0	자동차, 주단조품, 건설기계
	<b>소 계</b>	<b>7.4</b>	<b>5.1</b>	<b>5.7</b>	<b>0.1</b>	-
중위험국	앙골라	12.4	18.0	18.6	0.4	선박해양구조물, 레일및철구조물, 석유제품
	브라질	96.9	89.2	54.9	1.0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나이지리아	15.7	13.8	6.9	0.1	합성수지, 자동차, 기타석화제품
	에콰도르	9.2	8.1	6.4	0.1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이라크	19.7	18.0	14.3	0.3	자동차, 무기류, 공기조절기
	러시아	111.5	101.3	46.9	0.9	자동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콩고민주공화국	3.9	2.6	2.6	0.0	합성수지, 기타정밀화학제품, 자동차
	카자흐스탄	9.0	9.0	4.5	0.1	자동차, 공기조절기, 평판디스플레이
	콜롬비아	13.4	15.1	11.3	0.2	자동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b>소 계</b>	<b>291.7</b>	<b>275.1</b>	<b>166.4</b>	<b>3.2</b>	-
저위험국	멕시코	97.3	108.4	108.9	2.1	평판디스플레이, 철강관, 자동차부품
	인도네시아	115.7	113.6	78.8	1.5	석유제품, 철강관, 편직물
	알제리	10.2	14.1	8.5	0.2	자동차, 건설광산기계, 정전기기
	오만	10.1	11.7	9.4	0.2	자동차, 석화합성원료, 공기조절기
	이란	44.8	41.6	37.6	0.7	철강관, 자동차, 합성수지
	<b>소 계</b>	<b>278.1</b>	<b>289.4</b>	<b>243.2</b>	<b>4.6</b>	-
기타국가	UAE	57.4	72.1	60.8	1.2	자동차 및 부품, 공기조절기
	말레이시아	85.9	75.8	77.4	1.5	석유제품, 반도체, 동제품
	카타르	8.5	9.0	6.7	0.1	건설광산기계, 자동차, 전선
	사우디아라비아	88.3	82.9	94.8	1.8	자동차, 정전기기, 공기조절기
	쿠웨이트	11.3	19.8	9.2	0.2	자동차, 정전기기, 전선
	<b>소 계</b>	<b>251.4</b>	<b>259.6</b>	<b>248.9</b>	<b>4.7</b>	-
<b>총 계</b>	<b>828.6</b>	<b>829.2</b>	<b>664.2</b>	<b>12.6</b>	-	

주: 총 수출액 대비 대산유국 수출액

출처: 한국무역협회

< 첨부 7 >

**중점관리 모니터링 대상국 선정 지표**

분류	국 가	수출입(백만 달러)		해외직접투자 (백만 달러)	관 리 대 상 <sup>2)</sup>
		수 출 <sup>1)</sup>	수 입 <sup>1)</sup>		
고위험국	베네수엘라	449.4 (90.5)	20.8 (39.0)	67.3	-
	아제르바이잔	122.9 (-54.4)	3.4 (6,254.5)	5.3	-
중위험국	앙골라	1,858.8 (3.3)	142.5 (-4.9)	10.3	해당
	브라질	5,494.8 (-38.4)	4,058.7 (-17.3)	6,583.3	해당
	나이지리아	685.8 (-50.2)	1,123.5 (-63.7)	296.5	해당
	에콰도르	641.3 (-21.0)	254.7 (-28.3)	47.5	해당
	이라크	1,427.7 (-20.6)	6,265.7 (-6.3)	354.6	해당
	러시아	4,685.7 (-53.7)	11,308.3 (-27.8)	2,329.5	해당
	콩고 민주공화국	26.5 (3.3)	301.6 (15.4)	8.7	해당
	카자흐스탄	454.5 (-49.9)	305.0 (-45.6)	2,572.7	해당
	콜롬비아	1,129.0 (-25.2)	323.5 (-46.8)	322.6	해당
저위험국	멕시코	10,891.9 (0.4)	3,464.2 (6.0)	4,111.1	-
	인도네시아	7,872.4 (-30.7)	8,850.4 (-27.8)	8,957.5	-
	알제리	850.2 (-40.0)	864.9 (-55.6)	208.8	-
	오만	939.4 (-19.8)	2,888.3 (-37.2)	693.8	-
기타 국가	이란	3,730.9 (-10.4)	2,367.4 (-48.3)	54.2	-
	UAE	6,076.8 (-15.7)	814.7 (-46.8)	1,176.9	-
	말레이시아	7,735.3 (2.0)	8,609.4 (-22.4)	4,526.7	-
	카타르	674.1 (-25.5)	16,474.8 (-36.0)	65.9	-
	사우디 아라비아	9,481.9 (14.4)	19,561.5 (-46.7)	3,015.1	-
	쿠웨이트	924.7 (-53.2)	8,973.4 (-46.9)	24.3	-

주: 1) ( )는 전년 대비 증감률

2) 저위험국 및 기타 국가는 중점 모니터링 대상국 선정에서 제외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 < 참 고 문 헌 >

- 한국수출입은행, 국제유가 하락이 중동·아프리카 산유국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2015. 1  
\_\_\_\_\_, 2015년 투자환경위험평가 종합보고서, 2015. 6  
\_\_\_\_\_, 중국 경제현황 진단과 우리의 대응방안, 2015. 10  
\_\_\_\_\_, 신저유가 시대, 정유·석유화학산업 전망, 2015. 12  
\_\_\_\_\_, 2016년 주요산업 전망 및 이슈, 2016. 2
- 현대경제연구원, 최근 유가 급락의 한국 경제 파급 영향, 2016. 1  
한국석유공사, NYMEX 선물시장의 WTI 순매수 포지션, 2016. 2  
국제금융센터, 주요 자원수출 신흥국의 금융불안 점검, 2015. 9  
\_\_\_\_\_, 산유국 재정상황에 따른 오일머니 회수 가능성 점검, 2015. 10  
\_\_\_\_\_, 주요 산유국 통화약세 현황 및 영향 점검, 2015. 12
- KOTRA, 유가하락에 따른 산유국 시장동향 분석 및 시사점, 2015. 5  
\_\_\_\_\_, 저유가 지속에 따른 중동 주요 산유국 정책·시장 동향 및 시사점, 2015. 12
-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2016. 2  
EIU, *Genrate Country Report*, 2016. 2  
IEA, *World Energy Outlook*, 2015  
\_\_\_\_\_, *Oil Medium-Term Market Report*, 2015  
OPEC, *Monthly Oil Market Report*, 2016. 2
- 문화일보(<http://www.munhwa.com>)  
한국일보(<http://news.hankooki.com>)  
Bloomberg(<http://www.bloomberg.com>)  
EIA(<http://www.eia.gov>)  
Financial Times(<https://ft.com>)  
IEA(<http://www.iea.org>)  
IMF(<http://www.imf.org>)  
Koreapds(<http://www.koreapds.com>)  
OPEC(<http://www.opec.org>)  
Petronet(<http://www.petronet.co.kr>)